

교회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

요한 14-17

by The Reverend Frances Taylor Gench

신약성경은 초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목회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싸인이며, 하나님께서 미래는 움직이시기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신적인 능력의 선물이며 전체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기도 하다.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위한 신학위원회는 교회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목상하게 하는데 기여한 신약성경의 몇 군데를 탐구하게 되었다. 그것들은 바울의 고린도전서 12-14, 사도행전 2 장의 성령강림 사건, 요한복음 14-17의 예수님의 고별 대화 가운데 나오는 성령의 활동 등이다. 이 성경공부는 요한복음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신약성경이 다양한 개념의 성령을 제시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바울과 사도행전의 독특한 기여를 잠시 다루고자 한다.

고린도전서 12-14

이 부분에서 사도바울은 성령에 대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여러 광채의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¹ 사실, 성령은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적합하게 여러 가지의 은사를 신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은사들은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 또한, 바울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 부여는 공동체를 단일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다양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4-11).² 그렇다면, 바울의 시각에서는 일치와 다양화는 대립적인 용어가 아니며, 이러한 시각이 바로 교회를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한 몸이라는 화상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힘과 존립은 우리의 동일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한한 다양성에 달려 있다.

사도행전 2

성령이 강력하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임하여 사도들에게 무슨 명령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또 다른 성령의 이해를 강조한다.³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이 다가와, 제자들이 어쩔줄 몰라 할 때, 그들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하며, 이것은 그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사도행전 10:44-48 과 15:28 참조). 중요한 면에서, 다가오는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을 이룰 것을 선포하는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⁴ 누가복음에서 성령은 예수의 탄생과 정체와 인자로서의 사명 (vol. I of Luke-Act) 에 있어서 중추적인 요소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찬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구원하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해 준다 (눅 1:35; 3:21-22; 4:14-19). 사도행전 (vol. II)에서, 동일한 성령이 바로 오순절날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새로운 활동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모두”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을 분별하고 끌어안고 섬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⁵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성령과 은사를 받지 못한 교회 (고전) 혹은 크게 움직이는 성령 (행)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또 다른 큰 이해를 가져다 준다.⁶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만찬식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대화인 요한복음 14-17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떠나심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랄만한 보장과 약속의 말씀 (14:1-6) 을 가득 받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4:18) 로서, 이것은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버려지지 아니할 것이며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떠나신 후, 성령이 그의 이름으로 올 것이며 계속되는 삶과 세상에서의 소명에 성령께서 동행할 것이다.

성령의 개념은 요한 자신의 것이며 전도자의 전통적인 영에 관한 이해를 수정하고 확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요한은 성령에 관하여 다른 신약의 증인들 보다도 분명하게 개인의 임재로 말하고 있다.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아버지와 계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⁷

신자들은 성령의 개인적인 임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경험한다. 사실, 여러가지 의미와 여러 단어 - 보혜사, 중재, 위로자, 혹은 선포자 - 로 번역되기 때문에 단어 자체의 번역이 꺼려진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는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파라클레테는 다양한 환경의 신자들의 “곁에 같이 가도록 부름받은 것” 이다.

성령에 관한 요한의 가르침은 다섯 군데 (14:16-17; 14:25-26; 15:26-27; 16:7-11; 16:12-15)에 나오는데, 각 부분마다 신자들의 삶 속에서의 성령의 역할에 관하여 다른 통찰력을 제공한다. **요한복음 14:16-17**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첫번 보혜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 있어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셨던 도움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말이다. 사실, 성령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한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님과 달리, 파라클레테 (성령) 은 떠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하신다. 성육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한 시대와 장소에서만 존재하셨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안에 항상 거주하시며, 훨씬 더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존재 하신다.

성령의 가르치는 역할은 특별히 중요하다: **요한복음 14:25-26** 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4:25-26).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외에는 가르치지 않고, 신자로 하여금 말씀의

전통 안에 뿌리내리게 한다. 그러나, 성령은 살아있는 교사로써,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펴서 가르치신다. 성령은 현대의 다가오는 모든 세대와 관련되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중요한 것을 해석해 줌으로 신자들을 새로운 진리로 안내해 준다. **요한복음 16:12-13** 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6:12-13).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령의 가르치는 활동은 곧 “보존적”이며 “창조적” 이라는 사실이다.⁸ 가르치는 역할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훼손되지 않게 전해주는 것이며, 그러나 또한 새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갈등을 겪을 때에 동행하여 주신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거나 힘을 쥐고있는 사람들에 맞서서 진리를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증인으로 나타나 주신다. **요한복음 15:26-27** 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15:26-27). 크리스찬은 세상의 혐오와 박해를 만날 때에 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수동적인 희생자도 아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증인이 되도록 힘을 부여하여 주신다. 더 나아가, 성령은 신자들을 위하여 세상이 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준다. **요한복음 16:7-11** 읽어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하시리라” (8 절). 세상은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죽게끔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신자의 삶 속에서 성령이 가지는 경험은 바로 예수님의 정당함이 입증 되었고 지금 그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리워졌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14:18).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부재를 메우는 것 이상으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16:7) 부활절 후, 성령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임재로 교회와 영원히 같이 하면서 계속되는 세상에서의 삶과 증거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여 주신다. 더욱이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선지자들에게만, 교사들에게만, 행정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신자들의 소유가 된 것이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2 등의 자격이나 간접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 성령의 개념은 요한의 독특한 신학적 환상을 심도있게 설명해 주는데: 교회의 놀랍도록 평등적인 시각과 신자의 현재의 경험 안에서 오늘 주어진 삶의 완성을 증거함. 기독교 사상에 기여한 요한의 가장 훌륭한 업적중의 하나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어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형성되는 삶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는 것이다”

토의와 묵상을 위한 질문들

- * 신약에 등장하는 성령의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면서 당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무엇인가?
- * 교회의 삶에 관한 요한의 성령에 관한 통찰력 중에서 어느 것이 당신의 호기심을 불러내는가? 왜 그런가? 장로교 전체의 공동의 삶에서 그것은 무슨 취지인가?
- *

¹ Raymond E. Brown, "Diverse Views of the Spirit in the New Testament," *Worship* 57 (May 1983): p. 230.

² Keck and Furnish, *The Pauline Letters* (?), p. 97.

³ Brown, pp. 232-33.

⁴ Joel B. Green,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Luke*, *New Testament Th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 42.

⁵ Green, pp. 46-47.

⁶ Brown, p. 233.

⁷ Raymond E. Brown, *The Churches the Apostles Left Behind* (New York: Paulist Press, 1984), p. 106.

⁸ Gail R. O'Day, "The Gospel of John,"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X (Nashville: Abingdon, 1995), p. 777.